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태도 연구: 고등학생 학습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현명

서울시립대학교

Korean EFL Students' Attitudes on the Use of the Machine Translation in L2 Writing Class: The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Seon, Hyun-Myung

University of Seoul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9.1.202305.7>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April 11, 2023

Revised: May 09, 2023

Accepted: May 18, 202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3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9.1, 007-021. Machine Translation (MT) such as Google Translate and Naver Papago has had important roles in L2 learning. In EFL settings, which are classroom-based English learning environments, Machine Translation (MT) has provided both learners and teachers with innovative means to learn English. With these ground-breaking challenges, this research aimed to study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using MT in English writing classes. This study gathered qualitative data using a questionnaire to 173 students at a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The survey questions included students' use of MT and their degree of satisfaction. Also, students' level of expectations and affective aspects were asked in the questionnaire. Findings show that most student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used MT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unknown English words and to translate L1 sentences into English ones. While anxiety level caused by L2 learning was reported to be lowered, whether the level of learning interest and accomplishment was increased or not remained uncertain. Based on the pedagogical implication the use of MT in English learning will give unprecedented questions and considerations to teachers and learners of L2 continuously. (University of Seoul)

Keywords: Machine Translation, L2 Writ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2 learning, EFL settings

1. 서론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제2언어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KoI 외(2018)는 온라인 캠브리지 영어사전(Cambridge English Dictionary Online)을 인용하여 기계번역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계번역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Machine Translation is the process of translating text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using a computer.”)

Tsai(2019)에 따르면, 비록 여전히 어휘와 문법면에서 오류가 지적되고 있고,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의 (literal) 번역이나 모호한 번역 등 부정확한 번역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아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Groves와 Mundt(2015)은 정확성이 높아진 기계번역이 언어교육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모국어 번역한 L2 텍스트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다면 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나라와 같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의 교실영어 수업에서 낮은 성취의 학생들에 만연한 무기력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더해 앞으로 교사들이 직면하게 될 더 큰 도전이라고 여겨지므로, 기계번역을 영어학습의 필요 불가결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EFL환경의 교실수업 중심의 영어학습 상황에서 기계번역은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기술이 가져다 준 혁신적인 학습도구인 동시에 표절 등의 부작용을 포함해 과연 어느 수준까지를 학습자 고유의 언어능력(proficiency)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거리를 주게 되었다(Ducar and Schocket, 2018).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인간의 데이터 입력이 없이도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기계번역의 발전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조류에 비추어 외국어 학습에 있어 기계번역의 사용을 마냥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번역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외국어 학습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제2언어습득과 사용에 중요한 도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기계번역의 오류가 감소하고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기계번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교실수업 환경이나 자연스러운 습득환경(natural setting)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주적 언어학습(Independent Language Learning: ILL)의 경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번역도 학습자 료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큰 이질감이 없으나, 교실영어 상황에서는 여전히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생소하고 특별한 사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Niño, 2020). 특히, 인터넷이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어린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성인 학습자들보다 기계번역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적고, 사용에 능숙하지만, 기계번역에서 도출된 번역결과에 대해 참조할 만한 기준이 되는 언어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기계번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초급학습자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기계번역 사용 실태와 그에 대한 언어적, 정서적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실영어 수업 환경에서 기계번역 사용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FL환경의 고등학생 영어학습자들이 영작문 과제를 수행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기계번역의 일종인 구글 번역(Google Translate)이나 네이버 파파고(Naver Papago)의 사용을 허용하는 영어 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기계번역

사용 실태와 기계번역 사용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기계번역이 영어 학습자에 미치는 정의적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EFL환경의 영어 수업시간에 기계번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기계번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고(남신혜, 2019; 임희주, 2017; 정남숙, 2021; Ahn and Chung, 2020; 이상빈, 2020; Tsai, 2019), 이들 대학생 연구 대상자들의 영어 숙달도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초급 이상의 언어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기계번역의 사용 결과 제시되는 영어 문장에 대한 오류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윤재와 이동주(2020)의 연구는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으나, 연구 집단이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들로 2019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시험에서 과반 이상(70.5%)이 2등급 이내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고급 학습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보다 영어 숙달도가 낮은 고등학생 영어학습자의 경우는 기계번역으로 제시되는 결과에 대한 오류를 인식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부족하고 그 결과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베껴 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쉽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고등학교 초급 영어학습자의 기계번역에 대한 사용 실태와 그 인식을 조사하여 기계번역 사용의 초기학습 경험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이를 유용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EFL환경에서의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기계번역 사용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EFL환경에서의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은 기계번역 사용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EFL환경에서의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기계번역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기계번역의 역사와 발전

기계번역은 초기에는 부정확한 번역과 오류로 인해 학습자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2016년 구글이 AI를 이용한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방식을 도입한 이후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었다(Tsai, 2019). 즉, 2016년 구글이 도입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방식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나 딥러닝(Deep Learning)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번역 오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다시 데이터화하는 방식이다(황요한 외, 2020). 신경망 기계번역 프로그램이 도입한 인공지능은 인간 두뇌의 뉴런(neuron)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복잡한 번역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번역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Lim and Kamei, 2019). 실제로 2016년 신경망 기계번역이 도입된 이후 구글의 번역 오류가 이전 버전보다 평균 60% 감소하여 정확성의 향상을 보여주었다(Tsai, 2019). 이러한 기계번역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계번역 프로그램이 인간 번역가처럼 스스로 오류를 수집하고 학습하여 완벽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요한 외, 2020).

2.2 영어수업에서의 기계번역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L2 학습자들에게 기계번역의 사용은 그 편리성과 정확성이 제고될수록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Organ(2022)은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를 차용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방법인 Netnography 방법을 사용해 2020년 후반 영국 중등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소통공간에서 학교 과제 및 시험 대비에 구글 번역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에 대한 실태를 관찰하였다. 기계번역 사용에 대해 학생들은 부정확한 결과나 선생님에게 적발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피력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L2 쓰기를 위해 구글 번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pandemic) 동안 원격수업이 도래하면서 과제를 하는데 구글 번역의 사용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찰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어느 수준까지 학생 자신의 숙달도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이러한 기계번역 사용은 표절을 구성하는 요건과 향후 평가 정책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계번역은 L2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Niño(2020)는 다양한 L2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듣기와 말하기보다는 독해와 작문에서 기계번역이 유용하며 특히, 어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하였다. 비록 기계번역에서 표현상, 구어체나 속어표현 등을 처리하는데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계번역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부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온라인 기계번역 프로그램이 자주적 언어학습(Independent Language Learning: ILL)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언어 학습의 수단으로의 기계번역의 잠재성에 주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학습자라도 교수자의 피드백이 기계번역과 조화롭게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정남숙(2021)은 EFL환경의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 22명을 대상으로 구글 번역기와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학습자가 선정하여 영어발표 대본을 작성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먼저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과 영어 순으로 대본을 사전 작성하고, 이후에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사후 영작하였다. 사전, 사후 영작 과제는 영어침착 사이트인 Grammarly.com을 이용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분석인 단어 수(word counts), 구문의 복잡성(readability score), 어휘 측정(vocabulary measurements)항목을 비교하였다. 이후 정의적 변인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작성한 사후 영작과제에서 문장 길이 측면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쓰기 능력의 향상을 드러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기계번역을 사용함으로써 영어 쓰기 과제 수행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였으나, 학생들이 원하는 피드백의 유형은 교수자와 기계번역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계번역은 초급수준의 학습자보다는 고급수준의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Tsai(2019)는 중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모국어로 작문을 수행하고 이를 기계번역기의 도움 없이 영작한 다음, 동일한 모국어 텍스트를 기계번역기 Google Translate를 이용해 영어로 변환하고 두 개의 영어 텍스트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계번역 결과물이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법적 오류가 적음을 발견했다. 즉, 기계번역으로 영작문을 작성한 버전이 학생들이 기계번역기의 도움 없이 작성한 영작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문법적으로 오류를 줄여 더 정확성을 보였으며, 어휘 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이 초급자나 낮은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Garcia와 Pena(2011)는 16명의 대학생 스페인어 학습자를 수준별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게 L2인 스페인어로 이메일을 보내는 쓰기 활동을 먼저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하고, 이후 기계번역을 사용해 작성하게 한 다음, 두 결과물을 비교하였다. 양적 비교는 사용된 단어의 수로, 질적 비교는 두 명의 평가자가 문법적, 어휘적 오류를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초심자 학습자와 중간수준 학습자 모두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증가하고 오류가 감소하여 양적, 질적 향상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숙달도가 낮은 초급 학습자인 경우 기계번역의 도움으로 L2 쓰기 활동 시에 더 많은 단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번역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이 더 유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학습이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기계번역의 사용이 초심자보다는 고급학습자에게 적합하며 학습자의 의도에 맞는지 어법과 어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post-editing*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계번역이 고급학습자보다는 초급수준의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Lee(2019)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영작문, 기계번역을 사용한 영작문, 앞의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하여 수정한 최종 버전의 영작문을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최종 버전을 작성하는데 있어 기계번역의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어나 표현을 교체하거나 문법을 수정하는 등 *post-editing*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영작문과 최종 버전의 영작문에서 어휘적 복잡성이나 문장 복잡성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문법적 오류를 줄이고, 문맥적으로 적절하고 보다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영작의 질적인 수준을 높인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주어진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기계번역의 결과를 비판적이고 전략적으로 취사선택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그들의 상위언어적 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을 증진하여 이는 궁극적으로 영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계번역의 사용은 고급 학습자보다는 낮은 수준의 학습자에게, 문장수준보다는 어휘수준에서 유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EFL 환경의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Productive skill*인 쓰기 능력보다 *Receptive skill*인 읽기 능력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류가 제시되면 바르게 고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기계번역이 제공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은 제2언어 학습향상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Ahn과 Chung(2020)은 EFL 환경의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한 영어 쓰기 활동에 대한 인식을 학습자의 영어 숙달도와 쓰기 장르에 따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이 기계번역을 더 많이 사용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따라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목적에도 차이를 드러냈는데,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문법에,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어휘에 대한 도움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르에 따른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논설문(*argumentative writing*)보다 이야기(*narrative writing*) 장르의 쓰기 활동의 경우, 기계번역의 만족도와 수용도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ancino와 Panes(2021)는 칠레의 11학년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집단과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 쓰기 과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보조금을 받는 중등학교(*subsidized secondary school*)에 다니는 학생들로, 칠레는 EFL 환경에서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영어 과목이 주당 2시간의 필수교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더 많은 영어 수업 시간과 우수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비싼 학비를 내는 사립학교와 달리,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교는 좁은 교실과 의욕 없는 학생들, 부족한 수업 시수 등의 요인에 기인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영어 수업이 의사소통 중심 수업(*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보다는 문법기반 수업(*Grammar Translation Method*)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의 영어 숙달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학생들에게 짧은 영화나 그림을 보고 이야기 쓰기 과제를 부여하고 집단에 따른 영어 쓰기 결과물을 양적, 질적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계번역을 사

용한 학습자 집단이 사용 단어 수, 통사적 복잡성, 정확성 측면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다. 특히 영어 쓰기에서 사용된 단어 수의 증가는 낮은 수준의 학습자의 영어 쓰기 결과물을 풍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기계번역이 영어쓰기를 포함하는 L2 학습에서 제2언어 학습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경향은 기계번역의 발전이 진행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학습에서의 기계번역 사용은 자주적 언어학습(Independent Language Learning: ILL)을 가능하게 해주어(Niño, 2020),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L2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많은 연구에 초급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Ahn and Chung, 2020; Cancino and Panes, 2021; Lee, 2019). Krashen(1982)의 입력가설(Input Hypothesis)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면 이는 고급수준의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적이고 효율적인 L2 학습전략이 부족한 초급학습자들이 기계번역을 통해 현재수준의 영어 능력보다 높은 수준($i+1$)의 영어목록을 접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영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3. 연구 방법

3.1 참여자

본 연구는 2022년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기계번역을 활용한 영작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하였다. 1학년은 5개 학급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2학년은 3개학급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반은 편차가 존재하나 대략 20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학년이 주 4시간의 영어 수업시간 중 1시간이 영어 작문시간으로 할애되어 있다. 1학년은 NIE (Newspaper In Education)기반 수업으로 authentic material로서의 영어 신문기사가 아니라 학습용으로 편집 작성된 영어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문과 의견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방식이다. 2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authentic material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용 영어 소설을 매시간 한 챕터씩 읽은 후 감상문을 작성하는 수업방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 강북소재 공립 일반고 재학생들로 이들 고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2%의 학생이 영어에 흥미가 없다고 답했으며, 41.6%의 학생은 보통이라고 답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어에 흥미가 있다는 응답은 조사대상 학생의 26.6%로 나타나 영어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진 학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인문계 일반고 중 특정학교에 국한한 조사이지만,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도는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영어과목의 성취도가 향상되지 않으므로 교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일견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영어 숙달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객관적인 영어 점수를 얻는 것에 한계가 있어 차선책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어 실력 정도를 상, 중, 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면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도와 더불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연계하여 비교해 보는데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즉, 스스로 생각하는 영어 숙달도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5%인 반면, 42.2%의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어 숙달도가 하라고 대답한 점은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정원

(2022)은 학습자의 영어 능력과 외국어 불안 간에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객관적인 점수를 제시하는 과정이 없음에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영어 숙달도가 하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영어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는 이들의 영어 능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지 문항에는 학생들의 기계번역 사용실태와 만족도, 기대치와 정의적 영역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설문지 문항은 20개의 선택형 질문과 3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선택형 질문은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은 1. 학습자(설문 문항 번호 1~4), 2. 기계번역 사용 실태 및 만족도(설문 문항 번호 5~12), 3.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치(설문 문항 번호 13~16), 4. 기계번역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설문 문항 번호 17~20)로 나뉘어 있다. 선택형 설문 문항의 경우 일부 항목에 5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는데, 질문내용에 맞춰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기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개의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방식이다(부록 참고).

학습자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학습자의 성별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영어실력(숙달도)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번역 사용 실태 및 만족도와 기계번역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치와 관련된 설문지 문항은 Ahn과 Chung(2020)의 연구, 김혜경과 한수미(2021)의 연구, 공태수와 백재파(2021)의 연구, Niño(2020)의 연구, Tsai(2019)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인용,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기계번역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설문지 문항은 정남숙(2021)의 연구와 임희주(2017)의 연구 등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인용,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3개의 개방형 질문은 Lee(2019)의 연구를 인용,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기계번역의 장단점과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2022년 3월 개학 후 주 1회 실시되는 기계번역이 사용 가능한 영작문 수업의 2개월차 경과 시점인 5월 중순에 시행되었으며, 설문지는 당일 배부 후, 당일 회수되었다. 연구자는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설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영작문활동에 활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생각했던 점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문항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 솔직하고 자유롭게 응답해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학생들은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표시하고 연구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작성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7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기계번역 사용실태

기계번역 사용 실태 및 만족도(설문 문항 번호 5~12)에 대한 설문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기계번역을 자주 사용하며(53.1%) 구글 번역보다는 네이버 파파고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2%)(<표 1> 참고).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찾거나(37%), 문장 단위의 영작을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4%). 기계번역

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으로 영어문장 해석의 도움을 받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해 사용하거나, 영작할 때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알기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 모두의 번역에 기계번역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1%가 기계번역 사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계번역 사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 문항	선택지	응답자 수(%)
5. 영어 학습을 위해 기계 번역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①전혀 사용하지 않음	2(1.2)
	②가끔 사용	42(24.3)
	③보통	37(21.4)
	④자주 사용	62(35.8)
	⑤매우 자주 사용	30(17.3)
합계		173(100.0)
10. 기계번역 프로그램 사용후 만족도에 체크하세요.	①매우 불만족	2(1.2)
	②불만족	1(0.6)
	③보통	47(27.2)
	④만족	88(50.9)
	⑤매우 만족	35(20.2)
합계		173(100.0)

기계번역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설문의 경우 해당되는 보기에 모두 표시하도록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과 문맥상 의미가 맞지 않는 경우 기계번역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60명). 또한, 학생들은 도출된 영어 표현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것이거나(50명)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여길 경우(47명)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느끼거나(34명), 단어 사용에 오류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31명)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 스스로가 맹목적으로 기계번역의 결과를 베껴 쓰기보다는 기계번역의 결과를 취사선택하려는 노력이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2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기대

기계번역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치(설문 문항 번호 13~16)에 대한 설문에서, 60.1%의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의 영어의 네가지 영역 중에서 57.8%의 학생들이 영어 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다(<표 2> 참고). 이러한 결과는 Niño(2020)의 연구에 나타난 바대로 기계번역의 사용이 학습자들의 작문과제 개선에 유용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7.7%의 학생들이 영어 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결과를 합산해 보면 응답자의 85.5%가 영어 읽기와 쓰기 등 문어 처리에 유용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영작문 위주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기계번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고려하여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의 기계번역은 음성인식 기

술이 도입되어 말하기와 같은 구어처리도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영어 듣기나 말하기에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수업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기대

설문 문항	선택지	응답자 수(%)
13.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도움이 안 될 것	4(2.3)
	②도움이 안 될 것	10(5.8)
	③보통	55(31.8)
	④도움이 될 것	72(41.6)
	⑤매우 도움이 될 것	32(18.5)
합계		173(100.0)
14.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어떤 수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영어 말하기	14(8.1)
	②영어 듣기	11(6.4)
	③영어 읽기	100(57.8)
	④영어 쓰기	48(27.7)
합계		173(100.0)

그러나, 기계번역 사용과 영어 흥미에 관한 설문인 15번 질문에서 응답자 중 51명(29.5%)의 학생만이 기계번역 사용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 대답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86명(49.7%)의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답하여 기계번역 사용을 통한 영어 흥미 제고 효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36명(20.8%)의 학생은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3> 참고).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에도 반영되어 기계번역 사용과 성취감에 관한 설문인 19번 질문에서 응답자의 20.8%에 해당하는 36명의 학생만이 기계번역을 사용한 영작과제 수행 후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절반 이상인 92명(53.2%)의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답하여 유보적이 입장을 보였으며, 45명(26.1%)의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답하여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들보다 그 수가 많았다(<표 3> 참고).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계번역을 이용한 영어해석이나 영작문 활동이 자신의 실제 영어 실력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며, 또한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알게 된 영어 단어나 표현이라도 그것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자신의 언어 지식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Garcia와 Pena(2011)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계번역을 사용한다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은 학습이 일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기계번역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감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표 3. 기계번역 사용에 따른 영어학습의 흥미와 성취감

설문 문항	선택지	응답자 수(%)
15.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높아지지 않을 것	8(4.6)
	②높아지지 않을 것	28(16.2)
	③보통	86(49.7)
	④높아질 것	37(21.4)
	⑤매우 높아질 것	14(8.1)
합계		173(100.0)
19. 나는 기계번역 프로그램 활용시 영작문 하는데 성취감을 느꼈다.	①전혀 성취감을 느끼지 않음	11(6.4)
	②성취감을 느끼지 않음	34(19.7)
	③보통	92(53.2)
	④성취감을 느낌	31(17.9)
	⑤매우 성취감을 느낌	5(2.9)
합계		173(100.0)

4.3 기계번역 사용이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기계번역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설문 문항 번호 17~20)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기계번역을 사용함으로써 영작문 과제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감소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진술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답하여 기계번역 사용이 학습자의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남숙(2021)의 연구에서처럼 기계번역의 사용이 학습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도 영작문 과제 수행 시 기계번역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8명)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을 뿐, 39.9%(69명)의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고, 55.5%(96명)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앞으로도 기계번역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 대상 다수가 고등학생 영어학습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계번역의 정확성과 접근성이 더 높아지면 이들이 성인 영어학습자가 된 이후 기계번역의 사용이 일상화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들이 주어진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이었는데, 응답을 검토하면서 주목한 부분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다는 답변이었다. EFL 환경의 교실 수업에서 기계번역과의 공존을 모색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눈 높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표 4> 참고). 또한, 기계번역을 이용해 영작과제를 수행할 경우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특히 너무 쉽게 번역이 되다 보니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하된다는 답변과 연결 지어 보면, 영어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제고해야 하는 과업을 위해 기계번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 중 기계번역을 사용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오류를 알아내고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아울러 새로운 단어의 경우, 기계번역에 그 의미가 제시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단어를 외우려는 노력이 없으면 향후 그 단어를 또 접했을 때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의견도 염두해둘 만한 것이었다.

표 4.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	주목할 만한 응답
21.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과 같은 기계번역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대 사회에서 큰 자본을 들여 번역가 등을 구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전세계의)과 이야기할 수 있다. -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이 근처에 안 계실 때 유용함.
22.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과 같은 기계번역 프로그램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초적인 작문 실력과 아는 단어가 없다면 오류가 많음. 그리고 그걸 모름. - 번역만 하고 지나갈 때는 그 단어의 뜻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 동의어를 많이 가진 단어를 사용할 때 특히나 내가 원했던 결과와 다르게 번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너무 쉽게 번역이 되다 보니 사람들의 새로운 언어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는 욕구 저하 - 영어공부를 하면 도움은 되지만, 성취감은 느낄 수 없다.
23.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과 같은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는 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장 전체보다는 단어나 구 해석에 중점을 두고 영작은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할 것. - 모르는 단어나 문장은 번역을 하되, 그 단어는 다시 외우고 지나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EFL 환경의 고등학생 영어학습자들의 기계번역 사용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아울러 기계번역 사용이 이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영어 작문과제를 수행하는 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 영어학습자 173명을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기계번역을 자주 사용하며 단어나 문장 단위로 기계번역을 사용했다. 즉, 학생들은 모르는 영어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찾거나 문장의 해석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했다. 또한, 영작할 때 적절한 단어나 표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번역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기계번역을 사용하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영어 쓰기 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학생들은 영어 실력 향상이나 학습에의 도움과는 별개로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경우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거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정의적 측면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영어학습에의 불안감이 감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영어 학습의 정서적 측면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영역인 동기 부여나 흥미의 측면에서는 기계번역의 장점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학생들의 유보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계번역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기계번역의 활용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성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영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기계번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에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기계번역의 발전 추세대로라면, 향후 기계번역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그 정확도와 섬세함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전환의 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제2언어 학습에서 기계번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기계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영어 학습의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이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계번역 사용이 학습자의 동기부여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대상이 되는 고교생의 수가 비교적 적고, 응답자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응답자들의 영어과목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와 스스로 생각하는 영어 숙달도를 설문 문항에 사용하고, 객관적인 영어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영어 성적이나 평가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른 기계번역의 인식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들의 경우, 영어 숙달도의 편차가 크고, 특히, 초급 수준의 학습자인 경우, 기계번역을 사용할 때, 결과로 도출된 번역을 과도하게 맹신하고 오류인지를 판단하고 수정해서 사용하는 post-editing 절차 없이 무비판적으로 베껴 쓰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아 학습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고교생 학습자의 경우, 영어 수업이 시험 준비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계번역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계번역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필요한 연구로 고려해 볼 만한 것은 고등학생 학습자의 경우 기계번역의 사용에는 능숙한 편이나 실제로 교실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이용해 영작문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post-editing 작업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으로 이를 수업시간에 학습하고 연습을 통해 숙지하여 영작문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의 경우, 고등학교의 시험위주 영어학습에서 벗어나 대학에 와서 다양한 목적의 영어 학습이 이루어질 때 기계번역의 효율적인 사용은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계번역의 사용방안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post-editing 방법을 함께 학습하여 기계번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 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기계번역 사용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태수·백재파. 2021. 한국어 학습자의 기계번역 활용 실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859-871.
- 김혜경·한수미. 2021. AI 기반 영작문 학습도구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 인식: Google Translate, Naver Papago, 그리고 Grammarly를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22.4, 90-100.
- 남신혜. 2019. 한국어 학습자의 온라인 기계번역 도구 사용 경험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초급 및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15.2, 55-81.
- 이상빈. 2020.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2011~2020년 초)의 논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75-104.
- 이운재·이동주. 2020. 영어자동번역기 활용이 고등학생 영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교육*, 19.2, 159-180.
- 이정원. 2022. EFL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66.1, 155-174.
- 이정화·차경환. 2014. 한국어 구어 문장 파파고 한-영 번역 오류 유형 고찰. *현대영어교육*, 23.1, 56-65.
- 임희주. 2017. 교양영어 수업에서 영어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727-751.
- 전혜리·이상민·박일희. 2021. 영어교육에서의 AI 활용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4.1, 87-103.

- 정남숙. 2021. AI 번역기를 활용한 활동이 대학생 영어쓰기 능력과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24.1, 134-157.
- 황요한·이재영·신동진. 2020. 온라인 기계 번역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36.2, 191-210.
- Ahn, S. and Chung, E. 2020. Students' perceptions of the use of online machine translation in L2 writing.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2, 10-35.
- Alhaisoni, E. and Alhaysony, M. 2017. An investigation of Saudi EFL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Google Translate.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5.1, 72-82.
- Cancino, M. and Panes, J. 2021. The impact of Google Translate on L2 writing quality measures: Evidence from Chilean EFL high school learners. *System* 98, 102464.
- Chon, Y. V. and Shin, D. 2020. Direct writing, translated writing, and machine-translated writing: A text level analysis with Coh-Metrix. *English Teaching* 75.1, 25-48.
- Ducar, C. and Schocket, D. H. 2018. Machine translation and the L2 classroom: Pedagogical solutions for making peace with Google translate. *Foreign Language Annals* 51, 779-795.
- Garcia, I. and Pena, M. 2011. Machine translation-assisted language learning: writing for beginner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4.5, 471-487.
- Groves, M. and Mundt, K. 2015. Friend or foe? Google Translate in language for academic purpos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7, 112-121.
- Kol, S., Schcolnik, M., and Spector-Cohen, E. 2018. Google Translate in Academic Writing Courses? *The EUROCALL Review* 26.2, 50-57.
- Krashen, S. D.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 Lee, S. 2019. The impact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on EFL students' writing.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3.3, 157-175, DOI: 10.1080/09588221.2018.1553186.
- Lim, H. and Kamei, F. 2019. A Study on the Use of Machine Transl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6.3, 297-315.
- Murtisari, E., Widiningrum, R., Branata, J., and Susanto, R. 2019. Google Translate in Language Learning: Indonesian EFL Students' Attitudes. *The Journal of Asia TEFL* 16.3, 978e986.
- Niño, A. 2020. Exploring the use of online machine translation for independent language learning. *Research in Learning Technology* 28, 2402.
- Organ, A. 2022. Attitudes to the Use of Google Translate for L2 production: Analysis of Chatroom Discussions among UK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51.3, 328-343, DOI: 10.1080/09571736.2021.2023896.
- Tsai, S. 2019. Using google translate in EFL draf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2.5-6, 510-526.

선현명, 강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교양영어실
 E-mail: tsv0127@uos.ac.kr

3. 기계번역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치

- 13)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② 도움이 안 될 것 ③ 보통 ④ 도움이 될 것 ⑤ 매우 도움이 될 것
- 14)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어떤 수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영어 말하기 ② 영어 듣기 ③ 영어 읽기 ④ 영어 쓰기
- 15)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높아지지 않을 것 ② 높아지지 않을 것 ③ 보통 ④ 높아질 것 ⑤ 매우 높아질 것
- 16)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될 것 ② 도움이 안될 것 ③ 보통 ④ 도움이 될 것 ⑤ 매우 도움이 될 것

4. 기계번역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 17) 나는 기계번역 프로그램 활용시 영작문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감소되었다.
 ① 전혀 감소되지 않음 ② 감소되지 않음 ③ 보통 ④ 감소됨 ⑤ 매우 감소됨
- 18) 나는 기계번역 프로그램 활용시 영작문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
 ① 전혀 안정되지 않음 ② 안정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안정됨 ⑤ 매우 안정됨
- 19) 나는 기계번역 프로그램 활용시 영작문 하는데 성취감을 느꼈다.
 ① 전혀 성취감을 느끼지 않음 ② 성취감을 느끼지 않음 ③ 보통 ④ 성취감을 느낌 ⑤ 매우 성취감을 느낌
- 20) 나는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이후에도 영작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개방형 질문(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쓰세요.)

- 21)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과 같은 기계번역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2)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과 같은 기계번역 프로그램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과 같은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